

2024년
6월 19일 수
(June-2024)

Monthly Yangji



• Edited / 입학상담실 (Rhee) • Published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 (031) 326-5000

입시 소식

1. 재수 성공을 한마디로 정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양지 메가스터디 13기 졸업생 위재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재수라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만한 결과를 올해 얻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비록 재수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여 이 길을 나아가는 과정은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몇 번이고 무너지고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실패를 두 번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에 마음을 독하고 굳게 고쳐 먹었고 양지 메가스터디에서의 지난 1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치 고진감래라는 말이 현실이 되듯이 제 지난 날들의 무수한 노력들이 드디어 환한 빛을 발하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이번 재수 경험을 계기로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성장과 성취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특히 1년 전의 저와 비교를 해볼 때, 재수라는 매개체가 마치 저를 더욱 성장시키고 힘이 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저의 재수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양지 메가스터디의 모든 선생님들과 제 은사이신 박형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양지메가스터디를 선택한 이유?

제가 재수 생활을 위해서 양지 메

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한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메가스터디 학원이 현 대한민국의 가장 인기 있고 규모가 큰 학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인기와 규모의 비결에는 철저한 관리와 양질의 수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도 그러했기에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에는 청결하고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후기들을 참조해보았을 때 메가스터디의 시설은 수험생에게 안성맞춤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재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청결함이 유지가 되어 재수를 하는 동안 환경의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질의 수업과 실력 있는 강사 선생님들로부터 오는 탄탄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수업의 질과 효과는 이미 많은 선례들로부터 입증되어져 왔고,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후기들을 참고하여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학원에 들어와 수업을 듣고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다 보니 정말 실력이 오르고 공부에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3. 양지메가스터디학원에서 대입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의 대입 성공의 비결은 메가스터디의 학습 커리큘럼과 학습컨텐

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 생활 동안 메가스터디 내에서 제공하는 과목별 학습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저의 학습 속도나 방향을 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슬럼프가 오기 쉬운 7,8월에도 효율적이고 탄탄한 커리큘럼 덕분에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커리큘럼 내에서도 필수 선택을 제외했을 때에도 선택의 폭이 넓었기에 저는 제 약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선택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제 취약점들을 바로바로 보완해 나가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균형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꾸준한 학습컨텐츠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일 수학 30제를 꾸준히 진행해 나갔는데, 이 덕분에 수학이 뒤쳐지지 않으면서 하루에 최소 일정량 이상씩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플래너는 재수 생활의 리듬을 잡고 하루 하루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었고, 제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빨리 깨닫게 해주었기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플래너는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제 하루를 철저히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4.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저만의 학습 노하우를 과목별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입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학원 내 수업을 성실히 들으면서 글의 구조 파악과 정보를 독해해 나가는 구조 독해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에는 하루 최소 1지문 이상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의 밀집도, 제시 방법 등을 고려해 저만의 독해 방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질문이 제기되면 이에 뒤따라 다음 문단 쯤에는 그에 대한 답과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독해하독해하는 등의 독해 방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문학의 경우에는 독서처럼 학원 내 수업을 성실히 들으며 문학 작품 감상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연계 작품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과 주간지 등을 추가로 풀며, 낯선 작품을 마주했을 때의 대처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대부분 학원 내 커리큘럼과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고 유익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업 내에서 최대한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려고 노력했고 자습시간에는 이를 복습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강으로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의 경우에는 매일 영단어를 꾸준히 외우며 공부했고, 하루 세 지문 정도는 문제를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탐구의 경우 학원 내 커리큘럼을 이용하

여 빠르게 개념을 학습하고 다양한 문제집을 풀며 문제 풀이를 익혀 나갔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들어서 배웠던 개념들을 여러 번 복습하며 최대한 빈틈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와 개념 숙달을 반복하며 실전의 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념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포커스 시리즈 II

①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자

1. 반도체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기능에 따라 크게 메모리(memory) 반도체와 비(非)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합니다. 통상 ‘머리가 좋다’고 하면 암기력이 좋은 사람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능력은 완전히 다른데 전자를 메모리, 후자를 비메모리의 기능에 빗낼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그래픽 반도체라는 GPU가 AI에 왜 중요한가요?

애초에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게임이나 동영상에서 더 풍부한 색감을 구현하도록 만든 반도체였습니다.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컴퓨터의 부차적 부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G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22일 큰 관심 속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GPU라는 반도체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능력을 키워가는 AI를 구동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당뇨 치료를 위해 만든 위고비 같은 약이 알고

보니 비만 치료에 특출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과 비슷합니다.

3. GPU의 어떤 점이 특출난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종전 연산용 CPU는 계산의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AI에 쓰기엔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GPU는 계산 정확도는 CPU만큼 높지 않지만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치를 시연한 영상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영상을 보면, CPU에 해당하는 로봇은 종이 위의 필요한 위치에 차례차례 물감을 분사해 얼굴을 그려 나갑니다. 반면 GPU에 해당하는 기계는 필요한 물감을 한 번에 발사해 그림을 완성합니다.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빨리, 다양하게 거칠수록 유리한 AI로선 GPU가 더 적합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4. 엔비디아가 GPU의 유일한 강자인가요?

지금으로선 최강자가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한 우물만 판 이례적인 회사입니다. 미국 AMD 등 경쟁자들이 CPU에 눈을 돌리는 동안 엔비디아는 GPU 성능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쿠다’가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AI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이 주는 과제를 GPU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GPU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쿠다를 개발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위치의 GPU 기업이 만든 언어는 이제 AI 프로그래머들의 기본 언어가 됐고, 이젠 쿠다 없이 AI 프로그래밍이 번거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영어를 쓰는 나라에 한국어만 아는 사람이 가면 소통이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5. 엔비디아가 GPU를 개발하면, 누가 만드나요?

엔비디아는 GPU를 공장에서 '제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GPU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 즉 디자인을 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같이 공장 없이 반도체를 개발하기만 하는 기업을 '팹리스(fabless)'라고 부릅니다(제작을 뜻하는 패브리케이션에 없다는 뜻인 리스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이런 팹리스에서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파운드리(foundry)'라고 부릅니다.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파운드리이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주로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6. 메모리 반도체도 AI 시대에 중요하요?

물론입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없다면, 머리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한계가 있겠지요. 한국 기업도 AI 시대에 맞춰 열심히 움직여 AI에 적합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해 선보인 'HBM(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7. HBM은 어디에 쓰이나요?

GPU가 중요하다지만 그것만 있다고 AI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AI가 빠르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려면 연산 속도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뽑아 쓸 수 있는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HBM입니다. 아무리 많은 용량을 저장하더라도, GPU의 연산 속도를 쫓아갈 만큼 GPU에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면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HBM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뇌가 있어도 내용을 빨리 읽는 눈이나 책장을 빨리 넘길 손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HBM은 민첩한 눈과 손처럼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GPU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HBM이 들어간 GPU 반도체 세트를 'AI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8. 마치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중요해진 현재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한국 기업들에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HBM을 처음 개발한 SK하이닉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산 능력까지 갖춘 HBM4용 베이스 다이를 SK하이닉스 혼자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고성능 GPU는 제작하지 못합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

어가는 HBM을 만들어 대만 파운드리 TSMC로 공급해 왔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의뢰로 GPU를 만드는 것 외에 SK하이닉스의 HBM을 받아 최종 결합하는 작업(패키징)을 해왔고요. 이른바 SK하이닉스-TSMC-엔비디아 '연합군'입니다. 한편에선 TSMC가 이제 HBM 제조 단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와 파운드리를 모두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GPU부터 HBM까지 모두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일부 주문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TSMC·SK하이닉스가 협력하며 세를 불리는 상황에 이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DS부부장(부회장)을 갑자기 교체한 배경에 이런 위기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② 2025 수시전형의 특징과 전망(上)

목차
1. 6월 평가원모의고사 접수에서 나타난 특징
2. 2024학년도 의대전형 들여다보기
3. 무전공(자율전공)전형 변화
4. 화작, 화통, 사탐의 반란

1.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접수에서 나타난 특징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4일(화) 실시되었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474,133명으로, 재학생은 385,435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88,698명이다. 작년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하여 재학생은 10,060명이 증가하였으나, 작년 고3 수험생이 3만여명 감소한 때문인지 졸업생은 398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번 시험에서는 사회탐구 지원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사회탐구 영역에 27만1천676명, 과학탐구 영역에 25만2천26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처음으로 과학탐구 지원자가 사회탐구 지원자 수를 1,200여명 추월했었는데, 한 해 만에 재역전됐다. 통합수능 이후 높은 표준점수를 받기 위해서 과학탐구를 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왔지만, 자연계열에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수험 부담을 고려해 사회탐구를 고르는 수험생이 2만명 가까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원 인원 비교 요약

구분	2025학년도 6평			2024학년도 6평		
	재학생	졸업생 등	계	재학생	졸업생 등	계
국어	385,181	88,661	473,842	374,965	88,274	463,239
수학	383,595	87,752	471,347	373,170	87,241	460,411
영어	385,102	88,657	473,759	374,792	88,235	463,027
사회	231,089	40,587	271,676	210,008	33,759	243,767
과학	195,372	56,893	252,265	188,548	56,445	244,993
합계	385,435	88,698	474,133	375,375	88,300	463,675

자료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들여다보기

2025학년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이 정원내외의 합산 4610명으로 확정됐다. 정원내 4485명, 정원외 125명이다. 의전원인 차의과대까지 포함하면 총 40개 의대 4695명으로 늘어난다. 39개 의대 기준으로 수시 67.6%(3118명), 정시 32.4%(1492명)으로 수시 비중이 압도적이다.

수시/정시를 전형별로 살펴보면 교과전형이 34.2%로 가장 많고, 이어 수능 32.4%, 종합 28.9%, 논술 3.9%, 기타 0.6% 순이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규모를 살펴보자. 올해 지역인재 모집인원은 총 1913명이다. 선발하는 26개 대학 모두가 비수도권 대학이다. 수시에서 1549명(81%), 정시에서 364명(19%)을 선발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인재 비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전년대비 888명이 더 늘었다. 26개 대학 중에선 전남대의 지역인재 비율이 78.8%로 가장 높다. 이어 경상국립대 72.5%, 부산대 69.3%, 동아대 68.6%, 건양대 66.7% 순으로 지역인재 비율이 높다.

한편,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선발인원은 1492명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32.4%로 전년도 1161명에 비하여 331명이 증가하였지만, 전년 37.3% 비율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신학기 초만하더라도 의대정원 2천명 확대설 속에 수능 도전의 꿈을 꾸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이 1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정원 감소 소식과 더불어 대다수 수험생들이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정시모집 인원이 331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치열한 점수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수시 모집 비중이 워낙 커서 정시로의 이월인원 또

한 많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정시 선발 인원은 수능 합격선을 크게 낮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에 희망과 고통이 상존하는 입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 의대 전형별 인원

구분	유형	2025		2024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시	교과	1,577	34.2	940	30.2
	종합	1,334	28.9	875	28.1
	논술	178	3.9	116	3.7
	기타	29	0.6	21	0.7
	소계	3,118	67.6	1,952	62.7
정시	수능	1,492	32.4	1,161	37.3
	소계	1,492	32.4	1,161	37.3
합계		4,510	100.0	3,113	100.0

자료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2025 의대 지역인재 전형별 인원

구분	유형	2025		2024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시	교과	1078	56.4%	574	56.0%
	종합	449	23.9%	211	20.6%
	논술	22	1.2%	15	1.5%
	소계	1549	81.0%	800	78.0%
정시	수능	364	19.0%	225	22.0%
	소계	364	19.0%	225	22.0%
합계		1913	100.0%	1025	100.0%

자료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학원 소식

- 6월 모평 등급에 따른 벌점삭제

※ 추후 9월 모평등급은 올해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과목	국, 수, 영, 탐(2과목) - 한국사, 제2외국어 제외
비교항목	작년수능과 올해 6월 모평(수능점수 미소지자는 올해 3월 메대프 등급으로)
삭제점수	작년수능 5개 과목 등급합과 6월 모평 5개 과목 등급합을 비교, 상승 폭 만큼 삭제
작년 1등급 받은 과목을, 올해 6월 모평에서도 1등급을 받아 유지했다면 1점 삭제	

(예시1) **15등급에서 10등급 벌점 5점 삭제**

작년 수능등급						올해 6월 평가원 등급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급합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급합
3	3	3	2	4	15	2	2	2	1	3	10

(예시2) **7등급으로 동일 (수.탐2 1등급 유지) 벌점 2점 삭제**

작년 수능등급						올해 6월 평가원 등급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급합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급합
1	1	2	2	1	7	2	1	1	2	1	7

(예시3) **11등급에서 8등급 수석 1등급 유지 벌점 4점 삭제**

작년 수능등급						올해 6월 평가원 등급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급합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급합
3	1	3	2	2	11	2	1	2	2	1	8

※모평항목의 비교항목은 전년수능이 아니라, 올해 6월평가원입니다. - 올해 6월평가원 모평합 vs 올해 9월평가원 모평합